

“中, 요소 수출 중단 지시”...요소수 대란 또 오나

2차 요소수 대란 우려

산업부, 긴급 점검결과 “적정한 재고 국내 유지 중”
문제된 비료용 요소 대중의존도 17.4%...2위 국가
수급·가격 모니터링...‘만일의 상황’ 대비 태세 돌입

중국 당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긴급 점검 등 대응에 적극 나섰다. 제작년 ‘요소수 대란’과는 달리 수입대체 선이 확보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요소 비축 현황 등 긴급 점검한 결과 차량용 요소 재고는 현재 국내에 약 2개월분이 비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중국 당국이 국내 가격 상승 이후 비료생산 업체들에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외신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국산 산업용 요소 수입 비중이 90%를 넘는 현재 상황에서 자칫 2년 전과 같은 요소수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부 측은 “최근 중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중국기업들의 해외 수출물량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각급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수출제한 대상 요소는 차량용이 아닌 비료용이다. 비료용 요소의 경우 중국의 수입비중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를 기준으로 17.4%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농업용(비료용) 요소의 경우 이미 수입 다변화가 이루어져 대중 의존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국내 재고와 올해 도입예정 물량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요소수 사태 이후 정부는 공공비축 사업을 통해 차량용 요소 재고를 비축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은 기업별로 적정한 재고를 국내에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남아, 중동 등 수입대체선도 가지고 있어 기업들은 이미 대체 물량 확보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인 바 공급망 위기 발생시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는 남아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데다 한국은 올해 기준 제조용·차량용 중국 의존도가 90.2% 가량으로 매우 높다. 17%대인 비

료용 요소 역시 우리가 카타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의존하는 곳이 중국이다.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요소 수급과 가격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일의 상황에서도 국내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계약물량이 차질없이 반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 관련 부처, 주한 중국대사관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기업들과 함께 수입선 대체 타임라인을 마련해 필요한 요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불안 진행형...요소 수입선 다변화 현황은?

비료용 대중의존도 ↓...中17%·중동 51%
차량용, 2개월치 비축...中의존도 90% ↑

중국이 2년 만에 또다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년 전과 달리 중국 의존도가 낮아진 만큼 이전 수준의 대란은 겪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차량용의 경우 수입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국내 가격상승 이후 비료 생산 업체들에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재고가 줄어든 데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비료용 요소 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지난 2021년10월 중국발 요소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소는 비료용·차량용·산업용으로 나뉘는데,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으니 수입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앞선 대란을 겪고 난 뒤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로부터 약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과연 우리 정부는 이를 이겨낼 내성을 갖췄을까.

◆비료용, 중의존도 낮아...중동 비중 절반 넘어

지난 2021년 10월 악몽은 요소 수입 의존도가 큰 중국이 석탄 부족으로 요소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서 시작됐다. 뒤늦게 호주와 베트남 등에서 부족분의 일부를 수입하기로 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결국 일부 공장 가동이 멈췄고 국내 화물차 운행도 중단됐으며 운송수단 이용에도 차질을 빚었다.

여전히 요소는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공급망 불안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수입선을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이전과 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료용 요소의 경우 중국 수입 비중이 2021년 65%에서 올해 17%로 크게 낮아졌다. 대신 카타르 41%, 사우디 10% 등 중동 비중이 51%로 절반 넘게 확대됐다. 국내기업의 다변화 노력과 중동산 요소의 가격경쟁력 등에 기인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강종석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최근에 수입다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가격도 하향 안정화된 만큼 과거 생산 판매 추이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량·농업용 미포함...차량은 2개월치 비축

이번 수출 통제에 차량·산업용은 포함되지 않는 만큼 당장 민간에서 위기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차량용의 경우 약 2개월 재고를 비축한 상태로 파악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재고수준은 총 60일이다. 민간 상위 5개사 기준 6822t(톤)으로 45일, 조달청 3000t으로 15일 규모다.

농업용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농업용의 중국 의존도는 17.4%에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농업용 요소는 이미 수입 다변화가 이뤄져 대중 의존도가 낮다”며 “국내 재고와 올해 도입예정 물량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차량용, 대중의존도 90% ‘위기’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서 빚겨가면서 당장은 큰

문제는 볼거지지 않겠지만, 여전히 대중 의존도가 90%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위기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비중은 90.2%로 집계됐다. 카타르와 사우디 비중은 각각 6.8%, 1.4%에 그친다.

산업용 요소의 대중 수입 비중은 지난 2019년 89.3%, 2020년 88.5%로 90%에 육박하다가 2021년 83.4%, 2022년 71.7%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89.4% 다시 의존도가 올라간 상황이다.

산업·차량용의 대중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민간 기업들의 다변화 노력과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변화가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 대해 강 부단장은 “차량용 요소는 과거에도 중국 의존도가 90%였다. 지난해 7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0%까지 올라온 상황”이라며 “민간기업에서 물류비가 싼, 가성비 높은 요소수를 찾으려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스시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00021(영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